

[넥스테라 에너지] DOE, Duane Arnold 재가동에 최대 19 억달러 대출 클로징 - 원전 재가동 자금조달 리스크 해소



26.09.08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핵심 요약

- DOE, Duane Arnold 재가동에 최대 19 억달러 대출 클로징
- 원전 단독소유·생성인증 이어 자금조달까지 완료
- 주가 영향은 제한적, 합병 이슈가 더 큰 변수

미국 에너지부가 넥스테라 에너지 산하 Duane Arnold 에너지센터 재가동을 위해 최대 19 억 달러 규모 대출을 최종 클로징했다. 정부 대출 프로그램은 승인 이후에도 실제 자금 집행(클로징)까지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성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, 이번 건은 그 마지막 단계를 통과한 것이어서 재가동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의미를 갖는다.

이번 소식은 우리가 직전 실적 리뷰에서 짚었던 흐름과 정확히 이어진다. 넥스테라 에너지는 이미 Duane Arnold 잔여 30% 지분 인수를 마무리해 단독 소유 체제로 전환했고 생성 인증까지 취득해 2029 년 1 분기 재가동을 목표로 준비해왔다. 이번 대출 클로징으로 남아 있던 마지막 퍼즐, 즉 대규모 개보수·재가동 비용을 감당할 재원 확보가 구체화된 셈이다. 정부 대출인 만큼 자기자본이나 회사채보다 조달 비용 부담이 낮다는 점도 넥스테라 에너지 리소스(NEER) 부문 수익성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.

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원전은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형 전력수요 확대 국면에서 무탄소 기저 발전원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. NEER 는 최근 분기에도 배터리를 포함해 3.6 기가와트 규모 백로그를 새로 쌓으며 총 35.1 기가와트까지 파이프라인을 늘렸는데, 노후 원전 재가동은 신규 건설보다 리드타임이 짧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카드다. 다만 재가동까지는 아직 몇 년의 시차가 있어 당장의 실적 기여로 잡히지는 않는다.

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. 재가동 계획 자체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사안이고 이번 이벤트는 그 실행력을 한 단계 더 확인해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. 오히려 지금 시장의 관심은 Dominion Energy 와의 합병 승인 절차 쪽에 더 쏠려 있는 만큼, 이번 대출 클로징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긍정적 참고 사항으로 받아들여지되 향후 재가동 공정 진행 상황과 대형 부하 계약 체결 여부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.



재무 요약 (I/B/E/S 컨센서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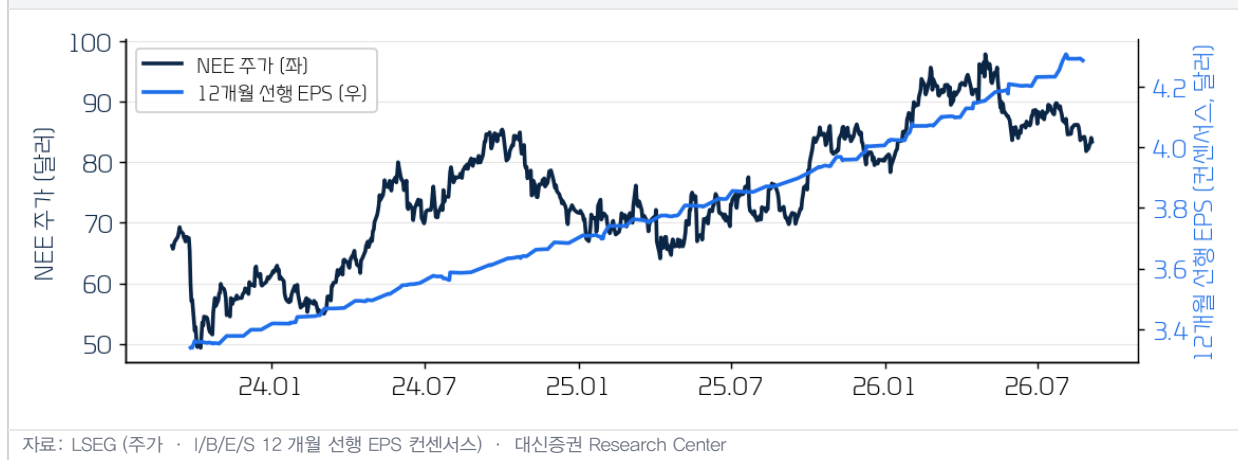
항목	FY Dec-24	FY Dec-25	FY Dec-26 (E)	FY Dec-27 (E)	FY Dec-28 (E)
매출 (Revenue)	24.75	27.41	30.60	33.55	36.58
↳ 증가율	-11.95%	10.74%	11.62%	9.66%	9.02%
매출총이익	14.26	22.47	27.38	30.80	33.76
↳ 마진	57.62%	81.96%	89.48%	91.79%	92.30%
EBITDA	12.94	14.86	18.53	21.26	23.26
↳ 마진	52.28%	54.21%	60.55%	63.38%	63.60%
영업이익 (EBIT)	7.48	8.28	11.11	12.96	14.36
↳ 마진	30.21%	30.21%	36.32%	38.62%	39.25%
순이익	7.06	7.68	8.52	9.34	10.17
↳ 마진	28.53%	28.03%	27.86%	27.83%	27.81%
EPS	3.43	3.71	4.05	4.40	4.76
↳ 증가율	8.20%	8.16%	9.22%	8.68%	7.99%
잉여현금흐름 (FCF)	4.75	3.21	-17.21	-13.86	-16.46
P/E	21.3x	24.3x	20.6x	18.9x	17.5x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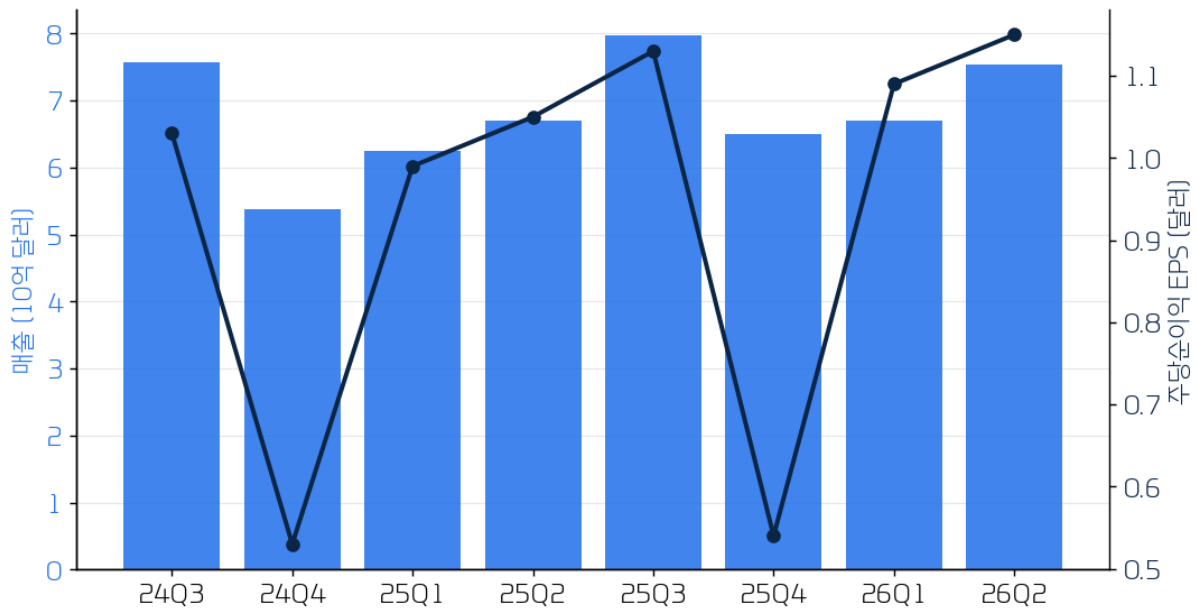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YoY, 단위는 십억 USD

참고 차트

NEE 주가·12개월 선행 EPS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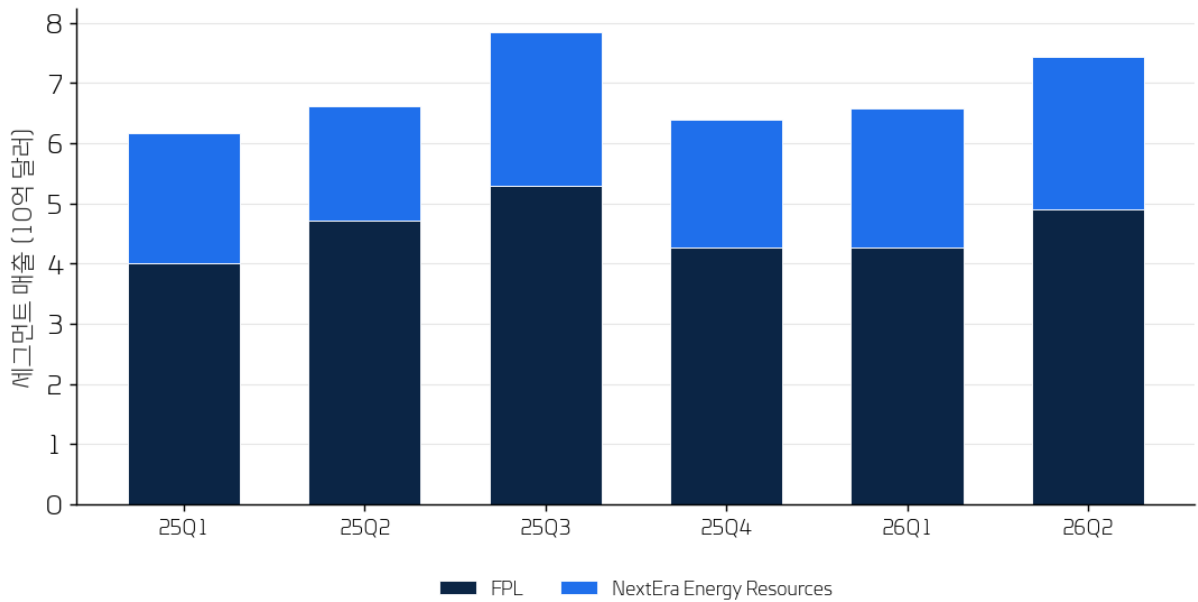


NEE 분기 매출·주당순이익(EPS) 과거실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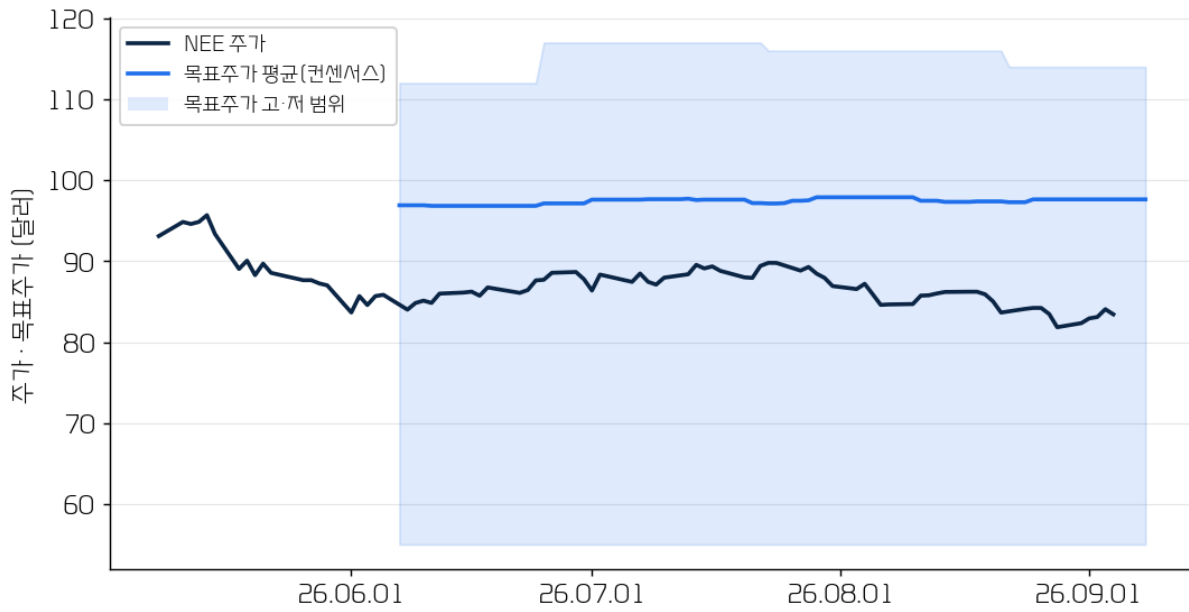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NEE 세그먼트 매출 구성(사업부/지역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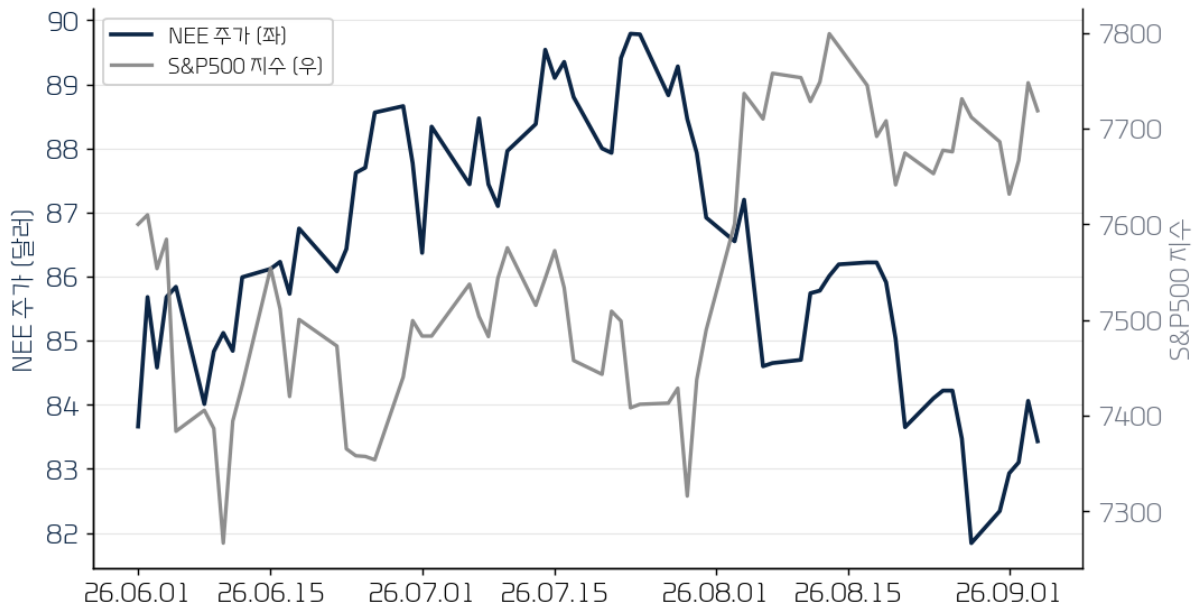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NEE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NEE 주가 vs S&P500 (최근 90 일)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 -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 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 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
-